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5년도 표어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생활지침 ⊗

- 1.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교회가 되자
- 2.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자
-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戰)을 건국하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517-7651 ~ 5 팩스/512-1225

'95 여름 농촌전도단 오늘 찬양 예배 시 파송식

“이 전도는 ... 내게 맡기신 것이라”

7월 31일(월)부터 8월 3일(목) 까지 3박 4일간 충남 천안군 용정리에 있는 용정교회로 파송되는 전도단을 기도로 후원하며 파송하는 예배를 오늘 찬양예배 시에 드린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한 디도서 1장 3절의 말씀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고 축호전도팀, 여름성경학교 진행팀, 의료봉사팀, 근로봉사팀으로 나뉘어 전도 및 봉사활동을 펴게 된다. 전

도단은 지난 19일(수)부터 4일간에 걸쳐 전도 훈련과 기도회로 모여 복음 전도자의 사명감과 영생의 소망을 새로이 하고, 전도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오늘 파송예배를 드린 후 내일 새벽에 파송을 받아 실제적인 전도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오늘 찬양 예배 시에 파송받는 전도단원은 총 48명 이지만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실제적인 준비에 함께 함으로써 전도단을 후원하

고 있으며 전도단의 활동과 지역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모으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전도단이 파송될 용정리에는 140가구에 450명의 주민이 있으며 용정교회는 1986년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현재 장년 20명, 중고등학생이 15명, 어린이 30명이 출석하고 있고, 담임교역자로는 문성용 전도사가 시무하고 있다.

이종윤 위임목사 학회·강의·집회 인도차 출국

- 체코, 미국 거쳐 내달 18일에 귀국 -

이종윤 목사는 세계 신약학회(Studiorum Novi Testamentum Societas) 참석 차 7월 31일(월) 체코 프라하로 출국한다.

세계신약학회는 세계적인 신학연구가들에 의해 가장 권위있는 모임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목사는 이 학회의 공관복음서 분과에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 목사는 그의 모교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목회자 연장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회성장과 갱신의 성서적 이해」라는 제하의 특강을 하게 된다.

8월 10일(목)부터 13일(주일)까지는 샌프란시스코 교회연합회 주최 광복 50주년 성회의 강사로 말씀을 증거하고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오는 8월 18일(금)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장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온 교회의 기도 후원을 부탁하였다.

이 목사가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 교회의 주일 낮예배의 설교는 전호진 목사와 김영한 목사가, 찬양예배의 설교는 심상권 목사와 김용진 전도사가 각각 담당한다. 수요일예배는 장용휘 목사, 김재호 목사, 최병호 목사가 인도한다.

☞ 교회학교의 남은 여름행사 ☜

부서	강사	실시일	장소
고등부	김용진 전도사	8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간	가나안 농군학교
대학부	원 호 목 사	8월 8일(화) - 11일(금), 3박 4일간	완택산 기도원
장년부	이순환 목 사	8월 13일(주일) - 16일(수), 3박 4일간	강화도
소망부	전호진 목 사	8월 중순, 2박 3일간	미정

새로 오는 교역자

우리 교회 당회는 교역자를 증원하기로 하고 이달 17일과 18일에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원호 목사, 이순환 목사, 김영현 목사를 청빙기로 하였다.

세분의 교역자가 새로 오게 됨에 따라 교회 부흥에 큰 힘이 될 것이며, 교육부서와 교구 행정이 좀더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9월 첫 주부터 원 호 목사는 우리교회 교육부서를 총괄 지도하게 되며, 이순환 목사는 새가족부를, 김영현 목사는 고등부와 10, 11, 12교구를 각각 지도하게 된다.

새로 오는 교역자들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원 호 목사



1956년 생으로 김현주 사모와의 사이에 1녀가 있다. 연세대와 미국 Northwest Baptist 신학교를 졸업하였고(M. Div., Th. M) 장신대원 청목 과정을 이수 중이다. 1992년에 안수 받은 후 타코마 삼일교회에서 시무하였으며 우리교회 교육 부서를 총괄지도하게 된다.

▶ 이순환 목사



1961년 생으로 권지희 사모와의 사이에 1남이 있다. 강릉대와 장신대원(M. Div.)을 졸업하였다. 1993년에 안수받은 후 남서울 제일교회에서 시무하였다. 새가족부를 지도하게 된다.

▶ 김영현 목사



1964년 생으로 가족으로는 황원희 사모가 있다. 계명대와 장신대원(M. Div.)을 졸업하였다. 1995년에 안수를 받았고, 금호교회에서 시무하였다. 고등부와 10, 11, 12교구를 지도하게 된다.

창세기 강해



이삭의 죄

(26장 1절 - 11절)

이 중 운 목사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십계명의 제 2 계명은 하늘과 땅과 물 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출20:5-6). 참으로 두려운 이 말씀의 의미는 조상이 지은 죄의 값을 그 후손이 지불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조상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죄를 후대에 반복하게 되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 진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 가정에 이갓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훌륭한 아버지였고, 이삭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훌륭한 가정에, 모범적인 부자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수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180년을 산 이삭에 관해 성경을 그리 길지 않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록 중에도 일찍이 아브라함이 범한 죄를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1. 애굽으로 내려간 죄

창세기 기자는 이삭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때 흉년이 든 것과 비교하여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때”(1절). 아브라함이 죄를 지은 것도 기근이 든 때였습니다(12:10). 그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랄 땅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도달한 그랄 땅은 애굽 국경지대에 근접한 곳으로 이삭의 발걸음이 애굽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삭은 약속하신 땅을 등지고 애굽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쉬지않고 시험이 닥치고, 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여러가지로 조성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

에 죄를 짓고 물질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이삭을 통해 그의 가문에 복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2~5절).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랄 땅에 오래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하여 일을 해결해 보려고 나서는 우리의 모습이 이삭과 같지는 않습니까?

2. 거짓말한 죄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죄를 짓는 모습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랄 지방에 머물던 이삭은 자기 아내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그 지방사람들이 자기를 해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하며 비겁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연명하기, 혹은 작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고 구차한 거짓말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메시아가 나올 가문으로서 온갖 축복의 말씀을 받은 직후에도 자기 호신을 위해 죄를 짓는 이삭의 모습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이삭을 정죄할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삭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흉년을 당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미모의 아내로 인하여 화를 당할까봐 바로왕에게 아내를 누이로 속인 적이 있습니다(12:10-20). 또한 그랄 지방에 가서도 아비멜렉 왕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했습니다(20:18). 아버지가 두 번 저지른 같은 죄를 아들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에게까지 죄가 전가

된다는 무서운 말씀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리시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랄 땅에서도 아비멜렉의 꿈 속에 나타나셔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경우는 블레셋 왕으로 하여금 이삭의 죄를 폭로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을 때 그는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는 그런 흔적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을 때 우리는 방향을 상실합니다. 결국은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상고함으로써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순례자 킬림 ✦

내세를 위하여

성경은 내세를 말한다. 내가 시인하든 말든 내세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나의 내세는 금세보다 훨씬 더 좋은 내세여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오른손과 오른 눈까지도 포기하고 내세의 복을 차지해야 한다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성경이 가르친 내세는 이 생의 연장이거나 현세보다 못한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세는 아무도 바라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그런 내세를 위해 현세를 희생할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세를 아무 의심없이 믿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내세가 없다면 지옥에 대한 것이나 천국을 가르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지옥에 던지음을 받지 않도록 특별히 경고를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세가 지옥이 되어서는 안된다.

짧은 이생의 욕심과 쾌락 때문에 내세에 주어질 복락을 잃어버리는 큰 우를 범치말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임진태

(목사, 사랑부 지도)

하루 동안의 성경학교는 짧고 이렇기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랑부 교사들에게는 다른 부서의 3박 4일 프로그램에 못지 않은 준비와 힘이 필요했다.

사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랑부 학생들에게도 진리는 영원하고 말씀은 살아 운동력있는 것이어서 말씀을 듣고 화답하는 사랑부 학생들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를 보며 그



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신할 수 있었다.

처음 온 친구 하나는 발을 사용해야만 했지만 결국 아름답게 그림을 완성하여 모두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

<솔로몬의 지혜>에서 열연한 선생님들을 향하여 티없는 웃음과 함께 아끼지 않고 보내 준 박수. 일어나지 못하던 아이가 한 걸음을 떼고 말 못하던 아이가 한마디 말을 건네울 때, 기쁨과 감사에 넘쳐 서로를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는 일... 사랑부 교사들은 이 진한 감격을 어느 것과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대해 단순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랑부 학생들에게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또박 또박 외워보이는 한 학생 앞에서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안에 뿌리를 박아 열매를 맺도록 더 열심히 전하고, 성령님의 은혜가 더 잘 전달되도록 투명한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만이 새롭다.



'95 중등부 여름 수련회에서

여덟개의 조로 나누어 진행된 중등부 수련회 각 조의 이름은 이스라엘 지파를 빌었다. 수련회를 마치고 쓴 감상문 중 각 지파에서 한 장씩 뽑아 심는다. 지난 24일부터 3박 4일간의 은혜와 사랑, 그 열기를 모두와 나누기 원하며...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역할극을 만들어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고델' 역을 맡았다. 고델은 극중 인물일 뿐 아니라 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임을 알게 되었다. 세 편의 역할극을 통해 변하는 세상, 변치않는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다. - 잇사갈 지파 -

둘째날 찬양의 밤.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의 열정에 우리의 냉랭하던 가슴도 녹아내렸다. 뜨겁게 드리는 우리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열납되기를 원하면서... 아- 평생 사는 동안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찬양하리라 - 시므온 지파 -

우리는 냇가에서 분반공부를 하였다. 포천의 계곡은 정말 아름다워서 상담 시간이 더욱 은혜로웠다. 그런데 친구들과 물장난을 하며 시원함을 만끽하는 순간, 앓! 물살이 갑자기 거칠어지고 깊어졌다. 당황한 나는 소리를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앞이 캄캄해졌다. 물에서 건져내어 속소까지 업고 옮겨 간호해 주신 홍 선생님이 아니었던면... 생명있음을 감사하게 된 사건이었다. - 아셀 지파 -



어두움이 점점 짙게 깔리고 찬양은 초여름밤의 연한 멜로디를 타고 우리 가슴에 부딪혀 온다. 찬양으로 밤을 열고 쌓인 장막 사이로 뽀뽀 타오르는 불길은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친구야, 용서해줘!", "선생님, 존경해요!"라고 대신 외치듯 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회개의 현장은 압박감 가의 아픔의 씨름 같은 것. 선생님과 우리가 하나되어 부둥켜 안고 울며, 친구와 친구가 서로 얼굴을 부비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 결심과 새로운 다짐으로 장식한 마지막 밤 - 잊을 수 없을 것이다. - 납달리 지파 -

주님! 뉴 에이지 문화의 실상에 대해 눈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헤비메탈 장르의 음악을 좋아해서 광적으로 좋아한 게 모습이 다름 아닌 사탄의 추종자였음을 보게 해주셨으니 앞으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더 적극적이 되고 유치한 그런 문화에 휘말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세상 풍조를 쫓아가지 않게 지혜를 주시고 붙들어주세요. "보라, 새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 르우벤 지파 -



예수님이 날 사랑하실까? - 이 고민으로 나는 밤을 지새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나는 변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확신하니 이 세상을 다 얻은 듯 펄뽀이 기뻐다. - 레위 지파 -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는 내가 서울교회에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 목사님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하게 되었다. 집에 돌아간다는 것이 섭섭하다. 그렇지만 여기서의 기쁨과 감동을 잘 간직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 베냐민 지파 -

하나님, 우리 수련회 후 서울에 가도 이 기도가 연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죄에 대해 민감하며, 잘못된 즉시 회개하여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 므낫세 지파 -



신세대 바람이 교회학교에도 불고 있다. 작년까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던 청년 교사들이 올해 부쩍 늘어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랫동안 유치부에 봉사하면서도 해마다 성경 학교가 시작되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또 어떻게 하면 환경을 좀더 예쁘게 꾸밀까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새로 오신 청년 교사들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아이들을 더욱 기쁘게 해 주었다.

장마 중이었지만 평소의 출석 인원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한 유치부 성경학교는 사랑스런 아이들과 교사들, 그리고 학부모가 모두 어제나 오늘이나

“교회학교에 부는 신세대 바람”

허 숙 (집사, 유치부 교사)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에 대해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특별히 올해는 유년부에서나 할 만한 수준의 학습센터를 세 곳에 설치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조를 짜서 돌아다니며 배우게 했는데 유치부 아이들에게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했던 염려는 기우였다.

이제 기성세대라고 할 수 있는 내게는 청년 교사들의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배우는 유치부 아이들이 자라면 또 그 다음 세대를 가르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런 모습으로 이 땅위에 세워져 가겠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 동문들

목회자 연장교육에 참가

한국교회갱신연구원(KIMCHI)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올해 설립된 한인목회자교육원(Institute for Korea Ministerial Education)을 통해 목회자 연장 교육의 기회를 갖기로 하였다.

오랫동안 학문적 전통과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한인목회자교육원은 한국 교회의 뿌리가 될 성경신학과 경건신앙의 원리를 좀더 체계있게 정립함으로 복음의 센터가 될 한국교회를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에서는 25명의 목회자를 선발하여 이번 목회자 연장 교육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과 국내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한인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전통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맛보게 될 이번 교육은 7월 31일(월)부터 8월 11일(금)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회갱신연구원 동문회는 목회자 신학세미나에 네 학기를 수료한 목회자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거듭되는 목회자세미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터득함으로써 교회갱신의 도전을 받을 뿐 아니라 바른 목회를 위해 서로 격려하고 목양을 위한 자료들을 수집, 교환하며 무엇보다도 교회간의 진정한 연합에 초석이 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이번 목회자 연장 교육에 한국 목회자들을 인솔하기 위해 우리교회 임진태 목사가 함께 출국한다.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오늘 찬양 예배 시 7월 새가족 환영회

새가족부에서는 오늘 찬양예배 시에 새가족 환영회를 가집니다. 환영회는 새가족 여러분이 교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교우들과의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7월에 등록한 새가족은 예배 전 인도자와 함께 예배실 앞에 마련된 환영석에 앉아 주십시오.

* 7월의 새가족 *

오상현	이혜영	김옥기	김은정	박순자	임종희	김용벽
나원학	김희경	임재암	이정옥	진애연	이순녀	최영희
김영세	김영아	우은선	유재호	유진희	남명호	강남숙
장인호	강연택	전홍기	박양순	남은희	김유경	김지영
오복순	윤대영	박선희	오해운	박춘자	나병국	장진표
전혜숙	김민기	박인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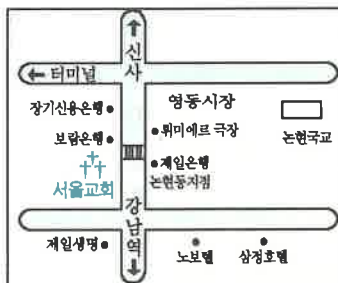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IKY 837KHz) 「성경교실」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I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대전 극동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장」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 6시 5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매주 화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여름행사를 통해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2. 파송되는 농어촌 전도단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3.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4. 목회자 연장 교육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도록